

요한 3 서 묵상 3
(10/15/2020, 목)

찬양: 455(507)(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요한 3 서 1:11

말씀에 대한 이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지적하며 꾸지람한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가이오에게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11 절). 11 절 -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은,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때문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는 결국 하나님을 뵈옵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선과 악을, 좁게 보면 가이오처럼 요한이 보낸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잘 대접한 것을 선으로 표현하며, 악은 그들을 배척한 디오드레베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말씀은 요한이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경고의 말씀으로도 해석합니다. 요한은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였느니라”고 말하면서, 영적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든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자신들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자부하고 있던 영지주의자들을 향해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음을 단호히 선포한 것입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요한의 말씀은 범위를 좀더 넓혀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선한 모범을 따를 것을 말씀합니다. 열왕기서에서는 다윗의 행적을 남유다 왕들의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왕상 15:3 - 아비얌(르호보암의 아들)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왕상 15:9-11 - 9.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이십년에 아사(아비얌의 아들)가 유다 왕이 되어 10. 예루살렘에서 사십일 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11.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물론 다윗도 큰 죄를 짓기도 했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신앙과 삶을 높이 평가하시고 후대의 본으로 삼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본받을 것을 본받으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빌 3:17 -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이 말씀은 그 위의 14 절에 기록된 바울의 말씀과 연결지어 읽어야 합니다. 빌 3:14 -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당시 반율법주의와 반도덕주의를 주장하던 자들을 경계하면서, 영적 방종에 빠지지 말고,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고 선을 행하며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장인 히 11 장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과 삶의 모습을 기록하였는데, 그 기록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하여금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것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지는 12 장 1-3 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권면 했습니다. 히 12:1-3 - 1.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주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최고의 모범이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성도의 믿음과 영성의 궁극적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엡 4:13 -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 모범을 보이심을 통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모범을 보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 13:14-15 - 14.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러한 주님의 뜻을 깨달은 사도들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딤후 2:6-8 - 6.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7.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8.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벧전 5:1-3 - 1.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2.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3. 말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요한의 권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선하고 거룩한 모범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럼에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함으로 우리를 속이는, 잘못된 모범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좋은 조언자,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모델과 본을 따르는지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어떤 신앙과 삶의 모습을 닮아가기 원하고, 닮아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묵상하며 성찰해야 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모범입니다. 우리는 그 분의 뒤를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우리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은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사람들을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한 사람의 작은 전도자가 되기 위한 노력일 것입니다.

오늘도 선한 것을 본받고, 나 자신이 선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나는 선한 모범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것을 따르는지 깊이 성찰하며 변화 받게 하옵소서.
2. 내 안의 잘못된 습관, 기질, 언행을 내어 버리고,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3. 전염병 창궐의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큰 소용돌이 속에 있는 미국을 주의 성령과 말씀의 권능으로 다스리시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